



연변, 문화와 관광 융합으로 다채로운 매력 꽃피워



약 50 헥타르에 달하는 연길공룡왕국은 과학보급교육, 주제오락, 동물생태, 연예공연, 창의제품, 레저가 일체화된 종합형 공룡문화주제공원이다. 이 종합형 공룡문화주제공원은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관광목적지로 떠올랐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력사가 유구하고 문화와 자원이 풍부하며 행복하고 화목한 곳, 도시와 농촌이 모두 아름다운 이곳 연변에서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한폭의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7월 들어 연변은 관광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서 변방 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

한여름의 연길은 오색찬란하고 푸른빛이 완연하다. 중국조선족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복장을 한 관광객들이 청기와와 하얀 담장 사이를 오가며 손을 흔드는 풍경이 포착된다. 민속원에서 온 하루 '공주'로 지내다가 연변대학 왕흥벽 앞으로 건너가 '연길'이 새겨진 커피 한잔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는 게 류행이다.

사천에서 온 방언은 흰치마에 록색 저고리를 입고 길게 떨어내린 머리에 아름다운 장신구를 하고 민족복장차

림으로 가족과 즐겁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곳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남쪽에 위치한 연길공룡왕국의 부지면적은 약 50헥타르로 과학보급교육, 주제오락, 동물생태, 공연, 창의제품, 레저가 일체화된 종합형 공룡문화주제공원이다. 공원에는 '연길력사문화박물관, 금두예술극장, 환락수세계, 공룡환락원' 등 4대 전시관과 '구석기시대, 쥐라기월드, 중국조선족풍경구, 동물왕국, 환호경관구' 등 5대 테마구가 있다. 2022년 7월 12일 개원한 이래 루계로 연인원 133만 7,000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길 방문 시 반드시 들리는 관광목적지로 되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방문한 견학단마다 해설원의 안내하에 마을 력사관과 눈에 들어가 향촌진흥전략의 배경 아래 세시대 새 농촌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마을 력사관에서 마을의 기원, 발전 과정을 료해하고 민족 전통 복식, 수공예품과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민족 문화를 연구하고 민족 특색이 있는 특색 음식을 맛보고 체험한다. 여러 민족은 중국꿈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결협력하고 공동으로 분투하는 정신을 따라배워 학생들의 민족 단결의식을 양성하고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광동촌은 전국 소학교, 초중, 고중 학생들의 교외학습실천교육기지, 국가급 농경 문화실천영어지, 길림성청소년애국주의교양기지로 학생들이 각종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훈춘시는 우리 성의 유일한 대 로씨야 항구도시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국풍치, 특색미식, 간편한 서비스... 국내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

름다운 훈춘'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데 한몫했다.

훈춘통상구 출입경대청에는 로씨야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통관하고 있다. 연변중철국제여행사는 문화, 스포츠 교류를 매개로 매년 로씨야 관광객 2만여명을 접대하고 있다. 이 회사 리승 총경리는 "현재 음식을 포함한 관광지는 로씨야 관광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 무용 교류팀이 비교적 많은데 연길공룡왕국,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꼭 봐야 할 곳이다."라고 말했다.

로씨야 관광객 나나는 "훈춘에 여러번 다녀갔는데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훈춘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곳에 와서 멋진 휴일을 보내는데 중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기자가 훈춘시통상구관리서비스센터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6월부터 훈춘통상구를 거쳐 출입경하는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로씨야로 출국하는 관광팀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바 일일 려객 류동량 5,000명을 돌파, 일평균 려객 류동 인원수는 년초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년 들어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와 정부는 '관광강주' 발전전략을 확고히 실시하고 관광 '천역급 산업' 난제해결 목표를 중심으로 일련의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업체, 새로운 장면, 새로운 놀이방식, 새로운 IP를 구축하였으며 능후한 인문가치와 정취가치를 부여하여 특색 우세를 형성했는바 전국의 치렬한 시장경쟁 속에서 한하면서도 다채로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

올해 5월, 연변은 연속 중국의 아름다운 생활 도시—전국 10대 매력 도시, 올해의 아름다운 환신(焕新) 도시, 2024년 중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순위에 올랐다. 6월, 연길시와 안도현은 2024년 전국 현급 지역 문화관광융합 종합경쟁력 100대 순위권에 들고 문화시는 2024년 전국 현급 지역 문화관광융합 발전잠재력 100대 순위권에 들었으며 7월, 연변은 전국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문화관광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길림일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 발표

상해와 광둥성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제도적 혁신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중산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지수에 따르면 심수 전해, 상해 포동신구, 광주 남사시험구가 상위 3위에 들어갔다.

중산대학 자유무역구종합연구원 부장정 원장은 "지난 9년 연속 발표된 이 지수는 무역 편리화, 투자 자유화, 금융 개혁·혁신, 정부 직능 전환, 법치화 환경 등 5가지 주요 분야를 기반으로 평가 및 조사를 수

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3년 상해에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면서 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시범적으로 펼쳤다. 여기에는 국가 금융시스템, 무역서비스, 외국인 투자 및 조세뿐만 아니라 추후 우리 나라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시범정책도 포함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제도혁신 349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

외국인의 중국내 숙박 편의 한층 촉진

최근 상무부 등 7개 부서는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봉사하고 외국인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 능력 향상, 업계 자를 강화, 플랫폼 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서비스 경로 원활화, 지불 편의성 향상,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 8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의 국내 숙박 편의를 더욱 촉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관련 부문 및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은 자격 요구 사항을 문턱으로 숙박업 운영자의 외국인 숙박 접대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 및 숙박업 운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에 외국인 숙박비 접대에 관한 정보를 발부해서는 안된다.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그들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지원하

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경영행위가 법률법규 및 소비자 권의 보호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의 책임을 다지고 임점업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외국인 숙박 등록에 대한 숙박업 운영자의 관리서비스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보 채집 항목을 간소화하며 교육관리 우선을 견지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외국인 소통 서비스 경로를 개선하고 숙박 분야의 지불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호한 외국인 관련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다음 단계에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인 숙박 편의를 위한 관련 조치의 시행을 지도하고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고 우호적인 숙박환경을 제공하며 고품질 개방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민넷-조문판

열차표 한장으로 3개 도시 관광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는 21일, '장춘+연길+훈춘', '장춘+길림+장백산' 등 두가지 관광 패키지(计次票)를 출시해 관광객들에게 한층 다양한 출행 선택을 제공하고 보다 자유롭게 관광 일정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패키지 3개 로정마다 각 한장의 2등 좌석표를 포함한다. '장춘+연길+훈춘' 코스를 레로 들면 관광객들은 표를 구매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9일내에 지정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지정 등급의 좌석에 탑승해 장춘(서)역에서 연길(서)역, 연길(서)역에서 훈춘역에 이르고 훈춘역에서 장춘(서)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패키지에는 출행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단독으로 구매할 때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장춘+연길+훈춘' 패키지 표의 원가는 289원, 할인가는 259원이며 '장춘+길림+장백산' 패키지 표의 원가는 256원, 할

인가는 229원이다.

관광객들은 관광 패키지표를 구매한 후 좌석 예약과 직접 스캔 등 두가지 방식으로 고속철에 탑승할 수 있다. 표를 구입한 후 12306 넷, 철도 '12306' 핸드폰 앱을 리용하거나 자동매표기에서 사전에 출발역, 도착역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을 예약한 후 탑승자는 표를 구매할 때 사용한 유효 신분증 원본을 지니고 개찰을 통해 탑승해야 한다. 로정이 변경되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으면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표를 구매한 후 사용자는 30일내(구매 당일 포함)에 사용해야 하며 30일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 처리하고 전액을 환불한다. 패키지 표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열차에 탑승한 날부터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사용하기 시작하면 환불받을 수 없다.

/연일

상반기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성장세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수출입 규모는 분기별로 확대돼 2분기에는 7.4%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 1분기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2.5% 포인트, 5.7%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국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 및 모델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올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봤다.

무역 방식으로 분석하면 상반기 국내의 일반 무역 수출입 규모는 13조 7,600억 원으로 전체 대외무역의 65%를 차지했다. 그중 수출은 8조 100억 원으로 8.5% 확대됐다. 이는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자체 발전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11.2% 늘어난 11조 6,4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대외무역의 55%로 전년 동기보다 2.5%

수출입 6.1% 증가, 사상 최대 규모

민영기업 해외 진출에 새 성장엔진

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중국정보협회 한 책임자는 "디지털화 기술의 깊이있는 응용과 다국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이 민영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민감도와 반응 속도를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상무부 등 9개 부서는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해외창고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디지털 휴먼 등 신기술 도입 지원, 인터넷 생방송 등 판매망 확대, 우수한 제품의 수출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힘입어 기업들도 활황을 누리고 있다. 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영호공예제품회사가 다국전자상

거래 B2B 방식으로 해외창고에 수출 판매한 상품의 총 가치는 5,500만 원을 넘어서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성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9.6% 증가했다. 그중 다국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수출은 11.8% 늘었다.

정책적 조치는 꾸준히 구체화 및 강화되고 있다. 상반기 대외무역 통계가 발표된 날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등 부서는 은행·보험 기관이 신뢰성 있는 주문·물류·자금 흐름 등 데이터 요소를 기반으로 다국전자상거래, 해외창고 기업에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할 것을 제안했다.

길림성 평균 로임 공포

일전 길림성통계국은 길림성 2023년 도시와 농촌 비사업단위 취업인원 평균 로임과 사업단위 취업인원 평균 로임을 공개했는데 각각 9만 4,937원과 5만 1,214원이다.

2023년 전 성 비사업단위 취업인원 년평균 로임은 9만 4,93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715원이 증가, 동기 대비 8.8% 성장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와 농촌 비사업단위 취업인원 년평균 로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장춘시 11만 211원, 송원시 8만 6,985원, 연변 8만 2,938원, 길림시 8만

2,773원, 사평시 7만 8,159원, 료원시 7만 8,112원, 백성시 7만 8,098원, 백산시 7만 4,926원, 통화시 7만 2,470원이다.

업계별로 보면 년평균 로임이 가장 높은 3개 업종은 각각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12만 708원, 전력, 열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11만 6,867원, 금융업 11만 5,172원이다. 년평균 로임이 가장 낮은 3개 업종은 각각 수리, 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 4만 6,350원, 류속과 료식업 4만 6,303원, 주민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4만 3,770원이다. /길림넷